

보도시점 2024. 1. 5.(금) 08:30 배포 2024. 1. 5.(금) 08:30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위해 총력대응, 예멘 반군 사태 관련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지원
- 설 성수품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마련중, 1월중 발표 추진
-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 등 홍해 통항 차질 대비 수출입 물류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①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②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③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김 차관은 1.4일 발표한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회복세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고,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하는 한편,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1.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시작하였고, 1월부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설 민생안정대책'을 1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홍해 인근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물류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유럽항로 중소기업 선적공간 별도제공, 컨테이너 임시 보관장소 추가 공급 등 수출입물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2024년 새해 첫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1.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One-Team)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및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방향 >

오늘은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채소류 등을 집중 점검하고, 2월 초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주요 민생안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어제(1.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¹⁾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하였고,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²⁾
70억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연초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23년 3,000억원→'24년 3,500억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2.10일)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기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월 초³⁾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하여,
기업 수요에 맞추어 유럽항로의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8천TEU)도 추가 공급⁴⁾하겠습니다.

1) 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갯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

2) '24.1~3월 시설농가의 난방용면세유(등유 등) 사용분에 대해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등유 기준 1,112.45원) 차액의 50% 지원

3) 정기 컨테이너선의 유럽 항로 주기가 약 1개월임을 고려

4) 부산항 신항 터미널 외부 대체 장치장(약 8천TEU) 운영 + 필요시 인접 다목적 부두 추가 활용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⁵⁾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하여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5) 반장(해수부 차관), 부반장(해운물류국장), 상황총괄팀(해운정책과 등), 선사대응팀(해운협회), 화주대응팀(무역협회, 중진공), 컨테이너 대응팀(HMM), 영향분석팀(KMI) 구성